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美 메이저 리그 '약물 폭탄' 터졌다

“클레멘스·본즈 등 전·현직 야구선수 75명 금지약물 복용”

미첼위원회 보고서...美 사회·전 세계 스포츠 팬들 충격

배리 본즈와 로저 클레멘스 등 미국 프로 야구 메이저리그의 전·현직 선수들이 무더기로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복용해왔음이 밝혀져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스포츠팬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조지 미첼 전 민주당 상원의원을 위원장

으로 하는 미첼위원회는 13일 311쪽 분량의 '미첼보고서'에서 메이저리그의 모든 구단에 속한 선수들에서 금지약물 복용 사례가 발견됐다고면서 이미 위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본즈를 비롯해 7차례나 사이영상을 수상한 '로켓맨' 클레멘스, 미겔 테하다(휴

스턴), 앤디 페티트(뉴욕 양키스) 등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 금지약물을 복용한 75명의 선수 명단에는 세이 소사, 마크 맥과이어, 게리 셰필드, 에릭 가니에, 제이슨 지암비, 트로이 글로스, 호세 기엔, 폴 로두카, 릭 앤키엘, 아

만도 리오스, 베니토 산티아고, 라파엘 팔메이로, 케빈 브라운, 레니 다이스트라, 척 너블러, 데이빗 저스티스, 모 본, 토드 헨들리 등이 포함됐다.

미첼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30일 버드 셀릭 커미셔너로부터 메이저리그에서의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HGH) 등 금지약물의 복용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개월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클레멘스와 페티트는 뉴욕 양키스의 체력담당 트레이너인 브라이언 맥나마이가 건네준 약물을 복용했으며 에릭 가



〈로저 클레멘스〉 〈마크 맥과이어〉 〈배리 본즈〉

니에(밀워키)와 폴 로두카(뉴욕 메츠)는 HGH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선수들이 별거나 자격정지 등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지 는 불확실한 상태이며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노조측은 이날 중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거 마크 맥과이어가 스테로이드 복용 혐의로 인해 올해 '명예의 전당' 가입이 좌절됐던 것이 상당한 '죄값'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미첼위원회는 뉴욕 메츠 클럽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선수들에게 약물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커크 라돔스키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인적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첼보고서는 특히 금지약물 복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데는 선수 본인 은 물론 각 구단과 메이저리그 사무국, 선수노조의 '잠자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재응, 2년간 40승!

KIA 빅리그 전성기 시절 등번호 40번 배정



“2년간 40승 하자!”

메이저리그 출신 '특급 에이스' 서재응(30·KIA)이 내년 시즌 빅리그 전성기 시절 배번인 40번을 달고 국내 마운드에 데뷔한다.

서재응은 입단 이후 구단과 상의한 끝에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 시절 달았던 40번을 달기로 했다.

KIA 관계자는 14일 “처음에는 26번을 원했는데 팀내 고참 투수인 장문석의 번호와 40번을 달게 됐다”면서 “등번호의 기를 받아 2년간 40승 이상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주로 26번과 40번을 단 서재응은 메츠에서 메이저리그 첫 풀타임 선발로 된 2003년 40번을 썼다가 2004년부터 한국 아마추어 시절 사용했던 26번을 2년간 달았다.

이후 2006년 LA 다저스에서 탬파베이로 트레이드되면서 98번을 사용했고, 올초 40

번을 되찾았다.

서재응은 40번을 달고 뛰던 2003년 32게임에 등판해 9승12패에 방어율 3.82로 빅리그 개인 한 시즌 최다승을 기록했다. 메츠의 차세대 에이스로 떠오르며 잘 나가던 시절이다. 그래서 등번호 40번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다.

서재응은 그러나 이번 KIA 입단과정에서 26번을 원했다고 한다. 광주일고-인하대 시절 쓰면서 정이 많이 든 번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팀내 고참인 장문석이 26번을 달고 있어 서재응은 차선책으로 40번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KIA는 오는 17일 입단식 때 서재응에게 입찰 흥과 원정용 유니폼 2벌을 이미 제작해 놓았다. 서재응은 입단식과 18일 선수단 남회식에 참가한 뒤 22일 미국으로 출국해 이번 정리를 마치고 내년 1월 팀의 캠프 전지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돌고래 처럼...

14일 태국 코라트에서 열린 제 24회 동남아경기대회(SEA Games·시게임) 여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에 출전한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탁구대표팀 男女 새 사령탑

서상길·윤길중 감독 선임

탁구 남녀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유남규, 한정화 전 감독의 동반 사퇴로 공식이던 사령탑에 서상길(57) KT&G 감독과 윤길중 현대시멘트(49) 감독이 선임됐다.

천영석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14일 오후 중구 태평로 코리야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남규, 한정화 감독 후임으로 서상길 감독과 윤길중 감독에게 대신 지휘봉을 맡았다고 밝혔다.

서상길 선임 감독은 1996년 애틀랜타 감독을 역임했고 2003년부터 KT&G 감독으로 일해왔다.

또 여자팀을 지휘하게 된 윤길중 선임 감독은 1983년부터 1996년까지 14년 동안 청소년·국가대표를 지도했고 동아증권(해체) 감독을 거쳐 1997년 카타르 대표팀을 맡았다 이듬해 국내로 복귀해 지난해부터 신생팀 현대시멘트를 이끌었다.

남녀팀 코치는 김봉철 농심삼다수 코치와 김형석 서울시청 코치가 각각 맡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여자핸드볼 4강 좌절

세계선수권대회 노르웨이에 저

한국 여자핸드볼대표팀이 노르웨이에 완패해 제18회 세계선수권대회 8강에서 탈락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체육관에서 펼쳐진 대회 8강전에서 이상은(6골)이 분전했지만 신상과 채력 열세를 절감하며 노르웨이에 24-35, 11점 차로 대패했다.

경기 시작부터 노르웨이에 연속골을 허용하며 0-3으로 끌려간 한국은 전반 중반까지 3차례 동점을 만들며 추격에 나서서 됐다. 한국은 하지만 주무기인 미들 속공이 하프라인 근처까지 달려나와 전진 수비에 나선 노르웨이 골키퍼에 차단당하고 중거리 슛도 번번이 막히는 바람에 12-16, 4점 차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서도 한국은 추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후반 15분에는 16-25, 9점 차까지 접수가 벌어져 사실상 승리를 넘겨줬다.

임영철 감독은 “신상과 채력에서 노르웨이에 압도하지 못했다”며 짧게 패인을 분석했다. 다른 준준결승에서 독일은 앙골라를 36-33으로 꺾었고, 루마니아는 홈팀 프랑스를 34-31로 꺾었다. 2005년 대회 우승팀인 러시아는 헝가리를 36-35로 물리치고 4강에 합류했다. 한국은 16일 앙골라와 5~8위 결정전 1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이충복, 세계 최강 브룸달 꺾었다

〈한국 랭킹 20위〉

당구 스리쿠션 월드컵대회 3대1 격파...8강행

당구 스리쿠션 한국 랭킹 20위의 이충복(서울연맹)이 세계 최강 토본트 브룸달(스웨덴)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충복은 14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 체육관에서 펼쳐진 세계개틀업연맹(UMB) 2007 수원 스리쿠션 월드컵 16강전에서 세계랭킹 1위 브룸달을 세트스코어 3-1(15-4 5-15

15-9 15-14)로 물리쳤다.

전날 32강전에서 2006년 세계스리쿠션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에디 맥스(벨기에)를 3-2로 물리치고 16강에 오른 이충복은 연일 파란을 일으키며 8강까지 진출했다.

첫 세트를 15-4로 따내며 가볍게 출발한 이충복은 두번째 세트는 5-15로 내줬지만 세번째 세트에서 15-9로 승리하며 앞서나갔다.

네번째 세트에서 이충복은 13-7까지 앞서가며 손쉽게 대어를 낚는 듯 했지만 올해 열린 6차례의 스리쿠션 월드컵에서 4번이나 정상에 올랐던 브룸달은 호락호락하지 않았

다.

브룸달은 수준높은 수비를 펼쳐며 이충복을 3이닝 동안 무득점으로 묶어 놓고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순식간에 14-13으로 역전했다. 14득점을 하는 순간 비교적 쉽게 안으로 물러치기를 할 수 있도록 공을 배치해 놓은 브룸달은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의자에 앉아 차분히 차례를 기다리던 이충복은 뒤로 물러치기로 동점을 만든 뒤 대회를 멋지게 성공시켜 15번째 득점에 성공하며 세계 최강의 무릎을 꿇게 했다.

연합뉴스

2개월만에 돌아 온 우즈, 1타차 공동 2위

PGA 타깃월드챌린지 1R 퓨릭, 4언더파 단독 선두

2개월 만에 필드에 모습을 드러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자신이 주최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타깃월드챌린지에서 네번째 우승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우즈는 14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사우던드 오크스의 서우드골프장(파72·9천97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

와 더블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4언더파 68타를 때려 선두에 나선 짐 퓨릭(미국)에 1타 뒤진 우즈는 잭 존슨(미국), 로리 사바티니(남아공), 헨리 스텐슨(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라 10주 만에 필드 복귀전을 무난하게 치렀다.

9월 말 프레지던트츠컵을 치른 뒤 휴가를 즐겼던 우즈는 올해 삼금왕, 다승왕, 최저타수 1위를 휩쓴 황제답게 17번홀까지 5개의 버디를 쓸어담아 선두를 잡았다.

하지만 18번홀(파4)에서 우즈는 티샷이 밀리면서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벗어났고 맨땅에서 친 두번째 샷이 그린 왼쪽 개울에 빠지면서 발타를 받고 4타만에 그린에 볼을 올렸다.

보기퍼머져 놓이면서 2타를 한계반에 얹은 우즈는 단독 선두로 끝낼 수 있었던 1라운드 1타차 공동2위로 마감하고 말았다.

스텐슨도 우즈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리다 16번홀(파5)과 17번홀(파3)에서 연속 보기를 범하는 바람에 공동 2위에 머물렀다.

마크 칼베키카와 파드리크 해링턴이 1언더파 71타로 선두권을 추격했고 유럽프로골프 투어에서 여덟차례나 삼금왕을 차지했던 폴린 몽고메리는 8오버파 80타의 부진한 성적으로 최하위로 처졌다.

연합뉴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애틀	골프장	시애틀
광주	3,500	클럽	900 6,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합계	7,400

상담 문의 (062)351-0095



- 15일(토) ▲2007 타깃 월드 챌린지 <2R> (05:00·SBS골프)
- ▲07/08 프로농구(LG:동부)(14:50·SBS스포츠), (SK:오리온스)(14:50·XS-SPORT)
- ▲07/08 여자프로농구(삼성생명:금호생명)(16:50·SBS스포츠)
- ▲07/08 V리그 남자부(현대캐피탈:한국전력)(15:00), 여자부(흥국생명:현대건설)(17:00·KBS N SPORTS)
- 16일(일)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포츠머스:토트넘>(00:00), <풀럼:뉴캐

- 슬>(02:00), <리버풀:맨체스터Utd>(22:30)·MBC ESPN)
- ▲07/08 네덜란드리그<페예노르트:AZ 알크마르>(03:40·SBS스포츠)
- ▲2007 타깃 월드 챌린지 <3R>(05:00·SBS골프)
- ▲07/08 프로농구(KT&G:LG)(14:50), <KTF:모비스>(17:00·XS-SPORT)
- ▲07/08 V리그 남자부(삼성화재:LIG)(14:00), 여자부(KT&G:도로공사)(16:30), 남자부(대한항공:상무)(19:00·KBS N SPORTS)
- ▲07/08 여자프로농구(KCC:삼성)(16:50·SBS스포츠)
- 17일(월)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첼시>(01:00·MBC ESPN)